



미국, 개물림 사고 증가와 보험의 역할

홍보배 연구원

요약

미국에서 개물림 사고로 인한 응급실 방문 및 사망률 등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19 이후 반려견 입양 급증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이들의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증가가 원인으로 제시됨. 미국은 주택보험을 통해 개물림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보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이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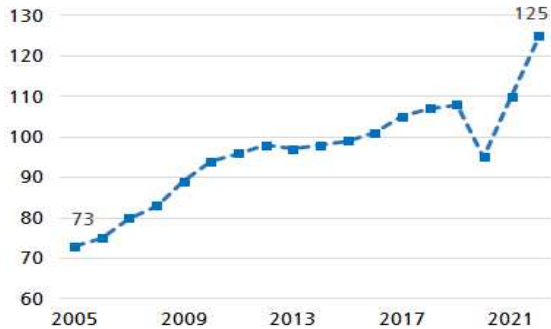
- 최근 미국에서 개물림 사고로 인한 개인의 응급실 방문, 입원 및 사망률 등이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서 개물림으로 인한 사망자가 2022년에 96명에 달하였으며, 개물림으로 인한 사망률은 2005년 대비 2022년에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어린이와 청소년이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을 방문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연령층으로 나타났으며, 2018~2022년 CDC 데이터에 따르면 5세 미만 어린이는 타 연령층에 비해 개물림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2배 이상 높았음
 - 미국의 주별로 살펴보면,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서 개물림 사고가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그림 1〉 참조)¹⁾
 -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에 따르면 2022년 캘리포니아에서 개물림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 건수는 48,596건으로 이는 주민 10만 명당 125건이며 2005년(10만 명당 73건) 대비 70% 증가하여, 2005년 이후 최고치에 달함
-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미국인들의 반려동물 입양이 급증하였고, 이러한 팬데믹 퍼피는 개물림 사고 증가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함
 - 미국 수의학 협회(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는 반려동물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미국 전체가구의 2016년 약 38.4%에서 2022년 44.5%로 6.1%p 증가한 것으로 추산함
 - 개물림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다양할 수 있는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동안의 반려동물 입양 급증 및 폐쇄로 인한 이들의 심리·사회적 스트레스 증가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음²⁾
 - 코로나19 기간에 입양된 강아지는 타 견과의 접촉 기회가 적어 사회성이 다소 결여될 수 있으며, 이러한 강아지가 성견으로 변하면서 개물림 사고가 증가할 수 있음
 -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폐쇄 등 스트레스 상황은 반려견의 공격적인 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제시됨
 - 특히, 캘리포니아주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개물림 사고로 인해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 수가 12% 증가하였으며, 연간 증가율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1) Kaiser Family Foundation(2024. 1. 26), "A Record Number of Californians Are Visiting Emergency Rooms for Dog Bites"

2) Habarth-Morales et al.(2022. 4. 1), "Pandemic Puppies: Man's Best Friend or Public Health Problem? A Multi data base Study"

〈그림 1〉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개물림 사고로 인한 응급실 방문 인원 추이(2005~2022년)

(단위: 인구 10만 명당)



자료: California Department of Health Care Access and Information

〈그림 2〉 미국 개물림 사고로 인한 지급보험금 및 청구 건당 평균금액 추이(2013~2022년)

(단위: 백만 달러, 달러)



자료: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 한편, 미국에서는 주택보험³⁾에서 개물림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⁴⁾ 담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이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2〉 참조)⁵⁾

- 주택보험은 일반적으로 책임 한도(일반적으로 평균 10만 ~ 30만 달러)까지만 개물림 사고에 대한 책임 비용을 보장하며, 청구 금액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손해에 대한 책임은 모두 반려견 소유자에게 있음
- 보험 정보 연구소(Triple-I)와 State Farm에 따르면 개 물림 및 기타 개 물림 부상과 관련된 배상책임 청구로 주택보험회사는 2022년에만 약 11억 3,600만 달러의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남
 - 보험청구 건당 평균 비용은 2021년 49,025달러에서 2022년 64,555달러로 31.7% 증가하였으며, 의료 비용 증가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판결에 따른 보상 규모 증가로 인해 2013년에서 2022년까지 10년 동안 131.7% 상승함

○ 이와 같이 개물림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이 크게 늘면서, 미국 보험회사는 주택보험에서 일부 품종의 맹견을 담보에서 배제하거나 보장 자체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함⁶⁾

- 배상책임 보장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개 품종 목록을 사용하는 것이 차별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됨에 따라, 몇몇 주에서는 이러한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규제를 도입하기도 함
 - 버몬트 등 일부 주에서는 보험회사가 개의 품종에 따라 보장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다른 다수의 주에서도 유사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는 해당 주의 법과 규제를 준수하여야 함
- 우리나라는 일상생활 책임보험 및 펫보험에서 개물림 손해배상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이러한 미국 제도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3) 미국의 주택보험은 주택소유자보험(Homeowners Insurance) 또는 임차인보험(Renter's Insurance)이 있음

4) 미국에서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에 관하여 소유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세 가지 종류의 법률이 있음; a) Dog Owners' liability ① A dog-bite statute: 개로 인해 발생한 부상이나 재산 피해에 대해 어떠한 사유에도 반려견 소유자가 자동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 ② one-bit rule: 개가 그러한 종류의 부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주인이 알았을 경우, 반려견 주인은 반려견으로 인한 부상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반려견 소유자가 해당 반려견이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③ Negligence Rule: 반려견 소유자가 반려견을 관리하는 데 있어 부당하게 부주의(과실)하여 부상이 발생한 경우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임

5)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2023. 4. 5), "Spotlight on: Dog Bite Liability"

6) Forbes(2023. 10. 3), "Dog Breeds Banned By Home Insurance Companies"